

‘고흥물’ 성장세 폭발적...전국서 호응

2022년 누적 매출 9억원...올해 3개월 만에 넘겨 특정품목 의존하지 않고 다양성 확보 ‘인기 비결’

고흥군에서 직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인 ‘고흥물’의 성장세가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고흥물에 대한 전국 소비자들의 큰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고흥물’은 2021년 9월에 오픈해 2022년 말까지 누적매출은 9억원을 달성한 바 있으며,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만에 판매액 9억원을 훌쩍 넘겨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고흥물의 인기 비결은 특정품목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성을 확보했다는 점이다. 고흥축협이

한우와 삼겹살, 흥양농협이 오이, 쌀, 그리고 가리비, 꼬막, 새우 등 다채로운 시즌 상품과 유자, 석류, 취나물 등 다양한 가공 상품이 팔고 루 판매 되고 있어 지속적인 판매 구조를 확보했다는 평가다.

공영민 군수는 “군민들에게 ‘생산은 농어민이’, ‘판매는 행정’이 하겠다고 약속을 해왔다. 올해 고흥물의 매출 목표는 20억원인데 올해 상반기에 순조롭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고흥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을 전국민은 물론 세계인이 사랑하는 브랜드 상

품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성문 흥양농협장은 “고흥물에서 오이와 쌀이 기대 이상으로 많이 판매되고 있어 감사하다”며 “온라인몰의 단점인 결제 지연을 농협에서 무이자 선결제 지원 등 고흥물 활성화와 군민 소득 증대에 앞장서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고흥물이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이어갈 수 있는 이유는 ▲정정 농수산물 생산환경 ▲전문가의 영입, 쇼핑몰 운영 ▲유통트렌드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비자 타겟 광고 ▲입점업체와의 소통과 교육 ▲우체국, 티몬 등 대형플랫폼과 제휴 ▲공격적인 라이브쇼핑 추진 ▲다양한 시즌 상품기획 ▲친절하고 빠른 고객서비스 등에 있다”고 전했다.

고흥=김취재본부



순천가면 뭐 먹지?...봄을 담은 먹거리

드디어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문이 열렸다. 순천을 여행할 ‘맛’이 생겼다. 맛의 고장, 남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곳이 순천이란다. 기왕이면 제대로 된 ‘순천의 맛’도 함께 즐겨보면 어떨까.

▶ 청정 순천만의 봄맛, 순천 맛조개무침&맛조개탕

알이 굵고 쫄깃한 육질을 자랑하는 순천만 맛조개는 특유의 담백한 풍미가 일품. 잘 해감 된 맛조개를 찜기에 넣고 찜면 맛조개찜으로, 물만 부어 끓여주면 그 자체로 시원한 맛조개탕이 된다. 살짝 데친 맛조개 껍데기를 일일이 까는 수고로움이 살포시 더해지면 새콤달콤 갖은 양념에 버무린 맛조개무침 완성.

▶ 향긋한 봄향이 한가득, 순천만미나리김치

순천만 일대 60여 농가가 농사짓는 순천포 미나리는 꼬막미나리초무침, 미나리떡갈비, 미나리삼겹살, 오리탕 곁들임 메뉴 등 다채롭게 사랑받는 농작물계 미다스 손. 이 팔방미인 미나리를 순천에선 오래전부터 ‘김치’로 즐겨왔다.

펄펄 끓는 물에 넣고 살짝 데친 미나리를 찬물에서 재빨리 씻어내 먹기 좋은 크기로 썬 후 물기를 꼭 짜준다. 미나리김치 양념의 포인트는 젓갈. 갈치나 멸치액젓에 고춧가루를 풀고 마늘, 새우젓 등을 잘 섞어 되직하게 준비한다. 양념에 미나리를 살살 풀며 조물조물 무쳐주면 향긋하고 아

삭한 순천만미나리김치 완성.

▶ 봄의 별미, 도다리속국 & 정어리뽕밥

바다의 내음 담은 도다리와 땅의 기운을 품은 속이 만나 봄의 시작을 알린다는 도다리속국은 생선뼈 우린 육수로 진하게 끓여도 좋고, 은은한 된장에 들깨가루 풀어 구수하게 끓여도 그만이다.

사계절 중 정어리가 최고로 연하고 맛있는 계절 역시 봄. 냄비에 잘 삶은 고사리를 폭신히 깔고, 살 통통하게 오른 정어리를 양껏 올린 후, 특제 양념장을 골고루 덮어준다. 송송 썬 대파에 양파, 칼칼한 맛 더할 청양고추는 덩. 정어리의 비린 맛 잡을 토종허브 방어잎은 덩 중에 덩.

▶ K-치킨의 재발견, 순천 닭구이

닭의 다리 모양을 닮아 이름 붙여진 계족산(鷄足山) 자락, 순천 서면 청소골에는 한양으로 가는 옛길 ‘관문길’이 있었는데, 과거 보러 가는 선비들이 들르는 청소골 주막에선 그들의 장원급제를 기원하며 마늘과 소금 등의 간단한 양념을 한 닭구이를 내었다 전해진다.

순천식 닭구이는 싱싱한 생닭에 마늘, 소금 등의 양념을 발라 재어두었다가 숯불에 올려 즉석에서 구워먹는다. 지글지글 맛있는 소리와 함께 닭 한 면이 노릇노릇 해지면 뒤집어가며 익히는데, 양념을 바른 닭은 타기 쉬우니 자주 뒤집어가며 익혀야 한다.

순천=김승호 기자

여수시, 저소득 취약가구 180계층 집수리 지원...12억8천만원 투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업무협약...주거약자용 편의시설까지 지원

여수시가 주거취약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12억8천만 원을 들여 저소득 180가구에 집수리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본부와 ‘수선유지급여 사업’ 추진 위수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선유지급여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47%이

하 주거급여 수급자 중 실제 거주 가구에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해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도배·장판·창호·지붕 교체 등을 지원하며 특히 올해는 장애인과 고령자 세대에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를 추가로 지원한다.

앞서 시는 LH와 함께 180가구를 선정했으

며 현장조사를 거쳐 보수 범위와 시기를 최종 확정해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동호 건축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취약가구에 좀 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이 조성돼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저소득 취약가구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여수=김현근 기자

보성군, 찾아가는 투자심사 컨설팅 개최

지방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투자심사 중요성 인식



보성군은 지난 6일 회천면 북재출에서 보성별교 해양생태과학관 건립 사업, 율포항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총 2건의 지방 재정 투자 심

사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컨설팅의 주요 목적은 보성군 장기 미래 사업 추진 시 지방재정법의 범위 내에서 법

령에 의한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낭비 사례를 사전 차단하는 것이다.

보성군은 청주대학교 손희준 교수와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조기현 소장 등을 전문가로 초빙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주요 사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투자 심사 제도의 운영 취지, △투자 사업 추진 절차, △지방 재정 건전성을 위한 제도 보완 사항, △투자 심사 면제 사업에 대한 제검토 사항, △지방자치단체 채무 보증 매일 확약에 관한 문제 사례 등이다.

전문가들은 컨설팅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해 법령 등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는 업무 연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문제점 보완을 통해 중앙 및 도 심사 시 적정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투자 심사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보성군은 보성 별교 해양생태과학관 건립 사업(356억 원), 율포항 어촌신활력증진 사업(302억 원)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방침이다.

보성=김덕순 기자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누가 받나요?

- 방임, 유기, 학대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정폭력, 성폭력
-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26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